

## 철학사

### 29 프랜시스 베이컨

####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음,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과제로 '읽을거리 속 베이컨과 홉스' 와 '홉스 개요' 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베이컨에 집중하고, 시간이 된다면 홉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즉, 근대 철학의 역사는 두 가지 사상 흐름의 교차점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영국 철학의 경험주의 전통이,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대륙 철학의 합리주의 전통이 있다. 이 두 전통은 각각 과학적 귀납적 방법론을 모든 탐구 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데카르트가 제시한 수학적 연역적 방법론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상 흐름의 발전을 추적해 볼 것이며, 17세기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과 토머스 홉스부터 시작하는 영국 사상 흐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선 자신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의 전반적인 목적은 그의 저술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이컨에 관한 많은 2차 문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지지만, 슈툼프의 저서처럼 교과서에서 한 장씩 간략하게 다루는 부분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세계관의 변화를 추적하려는 경우, 이러한 관점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베이컨은 중세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모든 일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달랐다. 베이컨의 어머니는 개혁 신학을 신봉하는 청교도였고, 베이컨의 사고방식과 그의 전반적인 목적에는 그러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소위 문화적 사명, 즉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번성, 정복, 통치, 청지기 직분 등의 사명을 거듭 언급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 사명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명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탄 합니다 .

인류에게 속한 자연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는 개혁주의 사상가들이 흔히 그러하듯 철학, 과학, 지성 의

과제를 창조, 죄,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명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사역하시는 신학적 틀입니다.

하지만 그가 비난하는 특정한 죄악의 종류 와 그가 가진 특정한 구원의 희망은 철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스콜라 철학자들을 인류를 문화적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악의 주요 가해자 중 하나로 여깁니다 . 그 이유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논쟁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지식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오히려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혐오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불모성 대신에, 자연을 변화시키고 인간 사회를 형성하는 과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중세인들은 철학을 신학의 보조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

다시 말해, 철학은 신학의 하인, 보조자, 혹은 신학의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과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베이컨은 철학을 신학의 보조자, 즉 하인이 아니라 사회의 보조자로 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일종의 유토피아적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시대는 유토피아의 시대였습니다. 베이컨 자신도 자신이 꿈꾸던 과학적 유토피아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유토피아는 과학적 지식, 즉 자연의 과정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러한 변화된 사회이며, 그는 그것을 천국, 신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인 종교적 동기가 부여된 유토피아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대 과학이 실현하는 희망을 봅니다 . 바로 현대 과학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 그가 인간의 지식이 자동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불리 단정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윤리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지식은 힘이고, 이것이 그의 유명한 격언이기도 한데, 그는 그 힘이 적절한 윤리에 의해 통제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콜라 철학

전통에 뿌리를 둔 자연법 윤리가 없다면, 그는 윤리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마련할 수 없기에, 그의 말대로 참된 종교와 올바른 이성에서 비롯된 윤리를 추구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윌리엄 오컴의 사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참된 종교는 신의 계명 이다 . 바른 이성은 결과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분별력이다. 참된 종교와 바른 이성.

자, 만약 당신이 이 선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베이컨의 작품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선집입니다. 아, 안 가져오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네, 용감한 분들 중에는 중고 책을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새 책을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어쨌든 전부 가져오세요. 전부 다 필요합니다. 20페이지에, 아, 제가 단어를 잘못 가져왔네요.

냅은 거요. 좀 빌려도 될까요, 제넬?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알았어.

베이컨의 글 맨 마지막 부분, 20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에는 세 가지 종류, 즉 등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것이 바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류가 저속하고 타락한 것일까요? 그러니 그는 윤리적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 두 번째 부류는 조국의 힘과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분명 더 품위 있어 보이지만, 탐욕은 여전합니다. 바로 기업의 이기심이죠. 영국 역사를 안다면 엘리자베스 시대의 작가에게 흥미로운 주제였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인류 전체 의 힘과 지배력을 우주 전체에 확립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한다면 , 그의 야망은, 만약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우주에 행사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컨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문헌을 접하거나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베이컨식 사고방식이 현대 과학이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과 환경을 우리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지배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프랜시스 베이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베이컨이 어떤 맥락에서 생각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컨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그것을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청지기 직분으로 생각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베이컨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베이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컨의 작품을 맥락에서 벗어나 해석한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지식이 자연의 과정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 자연의 과정에 대한 지식 일 것입니다. 자연의 과정에 대한 지식 말이죠. 그런데 그가 표현하는 방식은 미묘한 단어 선택을 간과하지 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편으로는 형상에 관한 형이상학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중세 시대의 의미에서 실재하는 보편자를 주장하는 실재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형이상학적 형상을 거부합니다.

, 즉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학자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입니다. 이성적인 수단이나 경험적인 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이상학적 형상 대신에, 형상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험 과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의미의 형태를 첫 번째 의미와 동일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형태는 자연적 과정이 진행되는 일관된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A가 일상적으로 B로 이어질 때, 자연적 과정에서 그러한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는 이러한 형태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물질 세계의 물리적 힘, 즉 물질 세계의 물리적 힘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하며 인용하는 철학자는, 기계론적 과학의 등장과 맞물려 예상할 수 있듯이, 그리스의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물질과 운동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의 당대 가장 중요한 과학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갈릴레오였는데, 그 역시 데모크리토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목적입니다.

그의 방법론, 즉 형태에 대한 경험적 과학은 그가 연역적 방법론보다는 귀납적 논리, 즉 적절한 귀납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덧붙이자면, 그는 연역적 추론을 비판하면서 삼단논법이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단논법에 수반되는 추론 과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논리의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현명해서 그런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제를 찾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석론 후부』의 긴 서두에서 정확히 지적했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죠. 증명을 위한 제1원리는 어디에서 얻는가? 플라톤은 변증법을 통해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원리에 대한 무한 퇴행, 즉 제1 원리에 관한 순환 논증의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우리가 어떤 종 전체에 대한 누적된 경험으로부터 제1원리, 즉 종의 형상을 직관적으로 추상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베이컨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직관적 추상화 과정입니다. 그는 부적절하고 성급하게 추상화된 개념들이 삼단논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어느 곳에서든 언급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종에서 형상을 추상화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는 그것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베이컨 역시 그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귀납법을 통해 우리는 형상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첫 번째 의미의 형상 귀납, 즉 직관적 추상화를 통한 귀납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모호하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의미의 형상을 다루는 데 있어 다른 종류의 귀납적 방법을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휘 선택에 주목하세요. 저는 그것이 그의 문학적 기교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그는 진정한 르네상스 문학가입니다.

하지만 그가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형식을 아는 방법으로서 귀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문학적 기법의 일부입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언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는 인식의 대상을 바꾸고, 인식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식 대상을 통해 새로운 인식 방법이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 방식의 지식 습득과 옛날 지식의 대상을 통한 지식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힘들을 다루는 경험 과학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그는 진리 그 자체나 이해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세인들처럼 진리로 가는 길을 신을 관상하는 사다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로 가는 길을 신을 관상하는 길, 형상들을 관상하는 길, 모든 형상의 형상, 즉 선을 관상하는 길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의 존재 위계질서가 아닙니다. 그의 세계관도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지만, 자연 속에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스리라는 창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신다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역사적 맥락을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베이컨과 관련된 핵심 주제는 크게 두세 가지 정도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그의 귀납적 추론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자연에 대한 권력, 즉 창조 명령과 관련된 권력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이러한 종류의 과학적 지식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말해준다는 생각은, 보편자에 대한 실재론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실재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은 그가 계몽주의에 전해준 것으로, 특히 다음 세기인 18세기 스코틀랜드 실재론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나타납니다. 스코틀랜드 실재론자 토머스 리드(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최근 10년간 스코틀랜드 실재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최근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연관성이 끊임없이 언급됩니다. 마크 놀은 미국 지성사 연구와 저술을 통해 이러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리얼리즘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언급되는 것은 베이컨식 과학관입니다. 베이컨식 과학이란 완전히 객관적인 과학, 순전히 경험적인 과학, 어떤 전제도 없는 과학을 의미합니다.

과학은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힌두교도, 완전한 자연주의자 등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자연의 실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실재론 전통에서는 현대 과학이 문화가 그 자체의 상부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통 지식의 토대를 제공하고, 그 토대 위에 철학적 신학, 변증론 등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신학이나 변증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스코틀랜드 실재론의 영향은 특히 위더스푼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면서 프린스턴을 통해 미국에 전해졌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는 스코틀랜드 실재론이 미국 사상에 스며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1860년대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인 찰스 호지는 베이컨주의적 토대

위에 자신의 신학을 구축했는데, 과학이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준다는 전제 하에 신의 존재, 인간의 자유와 책임 등을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고, 휘튼 대학교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총장이었던 J. 올리버 버스웰은 매우 확고한 스코틀랜드 실재론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로서 스코틀랜드 실재론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으며, 그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학부생 시절에 철학을 접할 때도 스코틀랜드 실재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제가 3대 총장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저보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가르치셨던 분이 3대 총장 밑에서 공부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리얼리즘에 나타난 베이컨식 영향이 미국 복음주의 사상에 영향을 준 겁니다. 지금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그 영향력이 훨씬 줄어든 것 같지만, 애즈베리 신학교처럼 베이컨식 철학이 지배적인 곳은 예외입니다.

흥미롭게도 스코틀랜드 사실주의의 부활은 현대 미국 인식론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죠. 자, 그럼 베이컨에 대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를 파악하려는 귀납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과학의 객관성과 그것이 스코틀랜드 사실주의 전통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적 지식이 진리 탐구나 신에 대한 묵상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단지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의 사상의 전반적인 정신, 목적,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두 가지는 그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즉 비판적인 측면과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입니다. 비판은 그가 '우상'이라고 부른 것들을 향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종교적 비유네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신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들은 인간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비과학적인 요소들이며, 반드시 몰아내고 제거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는 네 가지 종류의 우상을 구분합니다. 부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입니다.

그 부족의 우상은 인간 정신의 영향력, 특히 우리가 근본 원리라고 여기지만 제대로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무의식적 영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본성의 균일성, 선천적이고 타고난 자연 법칙과 같은 지식이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 그는 이러한 부족의 우상을 거부합니다. 선천적인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근본 원리를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거부하는 부족의 우상들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은 이러한 뼈대에 살을 붙여줄 것입니다.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기질, 즉 여러분 자신의 동굴에서 숨 쉬는 개인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사고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제 생각에 그는 윌리엄 제임스나 프리드리히 니체가 1900년경에 했던 말들을 들으면 꽤 놀랄 겁니다. 제임스는 마음이 여린 사람과 마음이 냉혹한 사람의 철학적 성향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죠. 심리적 성향이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자연에 대해 낙관적인 철학적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더욱 결정론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가진 강인한 사람. 또는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권력 의지, 즉 약자의 의지에 대항하는 강자의 의지가 사람들의 철학적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따라서 니체는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 심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민족심리학은 인종심리학, 즉 민족심리학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 등의 철학적 관점을 그들의 정신세계와 기질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굴의 우상은 개인이나 집단의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기 이쪽에 누군가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크리스틴이요. '트라이브'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동굴이 마치 플라톤의 메아리 같지 않냐고 생각했어요. 네, 확실히 그렇죠. 우리는 우리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만큼, 동굴은 그 자체로 감정적 기질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은 아마도 인류 전체, 즉 인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당신이 짐작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우상들. 물론 17세기 마을에서는 장날이면 모두가 그곳에 모였죠. 온갖 소문이 오가는 곳도 바로 그곳이었어요.

의도 했든 안 했든 , 알았든 몰랐든 온갖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 말입니다 . 그런 점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의 관용구가 완전히 잘못된 철학적 믿음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사가 사물, 실체, 물질을 나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명사가 가리키는 모든 것에 실체적 실재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이 형이상학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상들, 극장의 이상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상상 놀이는 현실이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연극은 철학, 과학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궤변적인 철학, 소위 경험적인 철학, 그리고 미신적인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용어들을, 그것도 두 가지뿐 아니라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방식은 유감스럽습니다.

그가 말하는 궤변 철학의 예시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법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합니다. 성급하게 추상화된 원리들이 삼단논법을 통한 확실한 결론 도출 가능성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주의 철학은 당시 과학의 일부 분야를 가리키는데, 이 분야에서는 신중한 관찰, 면밀한 조사, 경험적 연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는 여기서 자석, 자철석 등과 관련된 원시적인 연구를 했던 길버트의 업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신적 철학은 종교가 섞인 철학입니다.

철학과 종교가 섞인 것이죠. 그는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철학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모크리토스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러한 비판들을 살펴보면 그가 과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부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르네상스 시대에 회의주의가 다시 부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철학에 대한 회의주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회의주의,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재발견, 중세 철학 종합의 붕괴, 종교 개혁으로 남겨진 인식론적 공백 등등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베이컨이 과거 철학 에 대한 회의주의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을 고집했던 것처럼, 베이컨

역시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이컨은 오직 경험적 사실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는 중세 시대 사람들처럼 철학과 종교 사이에 어떤 능동적인 관계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탐구와 종교적 탐구, 즉 철학과 신학의 융합이 있었다. 하지만 베이컨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과학과 종교의 통합이 아니었다.

종교가 과학에 대해 가지는 유일한 경향은 과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과학이 도구적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고, 인간의 상태를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것은 과학의 내용이 아니라, 과학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갈릴레오를 예로 들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갈릴레오는 과학과 종교를 결합시키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베이컨 시대 의 영국 ,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에는 종교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종교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루터 학자이기도 했던 헨리 8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딸 메리가 여왕이 되었는데, 그녀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음, 그의 아들 에드워드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시기가 있었죠.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요. 그 후 메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다음은 개신교도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는 스튜어트 왕조가 들어섰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왕권신수설이 있었죠. 그런데 찰스 1세는 그 때문에 참수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종교적 투쟁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베이컨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혹은 적어도 기꺼이 했던 것은 종교를 철학과 과학으로부터 충분히 분리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과학자나 철학자를 박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독배를 마시지는 않았지만요.

그들은 도끼로 그런 짓을 저질렀고, 그런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그런데, 런던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각각 여섯 살, 여덟 살쯤 됐을 때 런던탑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들은 다발로 머리를 짧게 깎았었죠. 도개교를 건너 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우리 아이 중 한 명의 짧은 머리에 손을 얹더니 "머리 조심해. 안에는 시체가 널려 있어."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드가 런던탑에 갇혔을 때 받은 환영이었습니다. 네, 그게 그들이 반대파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베이컨이 종교와 과학, 종교와 철학을 분리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주관적 과학, 전제적 과학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종교가 과학에 부여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의 귀납적 방법, 특히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소위 표라고 부르는 것, 즉 연구 결과와 관찰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그리고 슈툼프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아마 224 페이지쯤 될 겁니다. 그는 존재의 표, 부재의 표, 그리고 정도의 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의 귀납적 방법론에 익숙하시다면, 이 표들이 밀의 방법론과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를 일치표, 차이표, 그리고 동반변동방법표라고 불렀는데,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 표들은 매우 간단한 실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현상 X의 원인을 밝히려고 할 때, ABC가 X, Y, Z의 선행 요인이고,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일치성을 통해 C와 X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해되지요? 반대로, ABC가 X, Y, Z의 선행 요인이지만 C가 없을 때 X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차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C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X도의 양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다시 한번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것은 간단한 실험 방법입니다. 금속의 선팅창 계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보시다시피 열을 가함으로써 다른 금속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선팅창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A가 X와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A가 X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해되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아주 단순합니다. 현대 과학적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설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실험을 제안하는 데 있어 가설의 역할. 개념적 모델이라는 개념은 없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현대 경험 과학 방법의 시작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어디 보자.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베이컨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영국 정치에 깊이 관여했으니까요.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영국 재상이었다고 들었어요. 제임스 1세 시대였나요? 네,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고위 정치직을 얻으려고 애썼고, 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죠. 비록 낮은 직책밖에 얻지 못했지만, 제임스 1세 시대에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흥미롭고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철학적인 활동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네요. 과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은 비교적 최근에야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박사 학위를 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세기 내내 과학은 자연철학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국 대학, 미국 대학, 그리고 여기 휘튼 대학의 예전 학과 안내서를 보면, 자연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 간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죠.

19세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그러했습니다. 한편, 베이컨의 작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정한 철학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하나는 근대 과학철학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입니다.

즉, 과학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요.

오컴이 낡은 시대의 끝을, 베이컨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이컨의 견해는 어떠했나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읽은 자료 들을 통해 오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저서에서 그런 내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의 말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오컴의 사상이죠. 크롬비라는 영국의 과학사학자는 베이컨의 이러한 표와 방법들이 윌리엄 오브 오컴에 의해 매우 유사한 형태로 예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윤리 문제에 대한 그의 호소력은 본질적으로 오컴의 호소력과 동일합니다.

제가 베이컨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그가 보편자에 관해 오컴주의자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용어주의자, 명목론자일까요? 아니면 개념론자일까요? 분명히 그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자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권리를 부정하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명목론자였다면, 신학자조차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없다고 부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개념론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오컴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제가 맞다면, 그가 케임브리지에 있을 당시 오컴이 매우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컴이 1577년에 학생으로 케임브리지에 갔을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스콜라 철학 방법론은 여전히 연구되고 있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옥스퍼드에서는 스콜라 철학 방법론과 스콜라 논쟁을 거부하는 의미로 둔스 스코투스의 저서가 공개적으로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론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냥 다 불태워버렸죠. 도서관을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들겠어요? 이제는 그냥 학생들에게 책을 팔아요.

네, 맞습니다. 오컴의 영향이 매우 큼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귀납법을 방법으로, 지식의 대상을 형식으로 표현하며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종류의 귀납법을 사용했고, 베이컨은 또 다른 의미의 귀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론이 A와 B

로 나오는 게 참 좋죠? 베이컨은 형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귀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방식은 인식 대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플라톤 시대에도 그랬고요.

만약 형태들이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초월적인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험적인 사례를 연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것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것과 씨름하기 위해 변증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별 사물 안에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형상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상적 귀납법이다. 하지만 만약 실제적인 형상이 없고 단순히 개별 사물만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간단한 경험적 방법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베이컨.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드네요. 솔직히 저도 처음 베이컨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베이컨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마도 제가 그 반대편 극단에 있는 실용주의를 너무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듀이의 실용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듀이의 두 번째 학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쯤이면 그의 저서 『철학의 재구성』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첫 번째나 두 번째 챕터쯤에서 그가 베이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는 베이컨의 격언인 "지식은 힘이다"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동일시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된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베이컨은 기독교 유신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신성한 명령을 믿습니다.

듀이는 철저한 진화론적 자연주의자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험적 사고를 제시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두 가지 매우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듀이는 자신의 실험적 사고를 윤리학에도 적용했습니다.

베이컨이요? 글썄요, 전혀 아니죠. 그는 올바른 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신중함은 고전적 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그는 플라톤주의의 부흥 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데이비드요? 네. 아, 네. 왜냐하면 그의 방법론은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 예시에서처럼 C와 X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댄, 베이컨은 플라톤과 다른 철학자들이 게임의 실재성, 변화 가능성, 그리고 감각이 그들을 속여왔다고 말한 방식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에 답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을까요? 그는 감각 지각의 상대성에 대해 답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기반이 되는 사례들을 늘림으로써 상대성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 만약 이것이 환상인지 상대적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른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됩니다.

그가 물리적 물체의 실재를 주장하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가 미신적인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세에 대한 사색 같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그의 비판은 본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과 같습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색에 빠지는 것은 역겹도록 나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을 반박하는 데 있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변증법적 논증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의 준거점은 언제나 창조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 준거점에서 그는 반박하기보다는 폐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데이비드 씨? 죄송합니다. 그럼 그는 그 추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음, 제 생각엔 당신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좋은 일이었다고만 해두죠.

그는 타락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여긴다. 그는 개혁주의 사상가들이 그러하듯 인간의 죄성을 모든 인간 활동 영역에까지 미치는 전적인 것으로 본다. 전적 타락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가 타락이나 자연 법칙, 그리고 경험 과학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는지입니다. 그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인간의 무관심이 세상을 어떻게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인류를 통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